

지난해 월드컵 때 외국인들을 위해 처음 도입했던 템플스테이(Temple Stay, 산사 체험 프로그램)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안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의 주요 코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마니아' 층까지 형성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엔 기업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대학교 교양과목으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힘입어 화엄사, 미륵사, 대흥사, 송광사(이상 전라권),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동화사,

주 5일 근무와 템플스테이

직지사(경상권), 마곡사, 갑사(충청권), 낙산사, 선홍사, 월정사(강원권), 전등사(수도권) 등 15개 사찰에서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신륵사, 불암사, 홍곡사(서울 구파발) 등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찰도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거주 휴무제에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 일반인들의 자진 삶에 활력을 주는 새로운 여가문화 만들기를 통한 포교 효과까지 기대돼 이 같은 사찰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양보다

질로 승부를

■ '호재' 로 기대 받는 '주5일 근무제'

'5일 근무, 2일 휴무' 시대가 우리 사회와 삶의 틀을 바꾸면서 라이프스타일 자체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데 이의를 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종교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특히 변화에 민감한 쪽은 개신교회. 전통적으로 일요일에 주일 예배를 보는 개신교회는 주5일 근무제가 신앙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한때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최근에는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갈릴리 교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토-일요일 연휴에 휴가를 즐기려는 젊은 신자들을 위해 '금요 저녁 예배'를 도입했고 금요일 저녁예배를 도입하는 교회는 앞으로도 속속 늘어날 추세다. 가톨릭에서도 미사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성당에 보육시설 설치, 가족 단위 주말 프

그램 개발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

반면, 불교계는 주5일 근무제가 포교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쉬는 날이 늘어날 경우 산사(山寺)를 찾는 사람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 같은 기대에는 단순히 절에 들러 '구경하는' 사람이 늘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템플스테이의 '안착'도 큰 몫을 하고 있다.

■ 정착 단계에 들어선 템플스테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산사 체험, 주말 수련회 등의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의 '주 고객'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다. 한 참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계속 참여하는 '마니아' 층이 따로 형성될 정도다. 이들 마니아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해외에 있는 지인(知人)들에게 '입소문'을 퍼트려 '홍보 맨'을 자청하기도 한다. 국제회의나 관광차 한국에 들른 외국인들도 산사 체험을 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고, 지난 3-4월 낙산사에서 열린 호주 언론인 템플스테이처럼 단체 참가자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7월 삼성SDI 부산 공장의 과장급 이상 간부 520명이 6차에 걸쳐 양산 통도사에서 수련회를 열고, 금융자동화기기 전문업체인 노틸러스 효성의 팀장급 직원 50여명도 지난 6월

산사체험·주말수련회 개념 확장

외국인 위해 참선·발우공양 등 '주력상품' 갖춰야

절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

강화 전등사에서 1박2일의 산사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은 전 직원이 지난해 9월 부산 범어사에서 연수를 가졌다. 지난해 임원진들이 산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하나은행은 올해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교양과목으로 도입하는 대학이 생겨날 정도다. 인하대가 올 여름방학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강화 전등사에서 산사 체험을 실시한 데 이어 중앙대는 교양학부 프로그램에 3학점짜리 산사 체험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템플스테이 담당 이고은 씨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가장 큰 이유는 정신적 휴식의 개념이고, 외국인의 경우 한국불교를 배워보겠다는 사람도 많다"며 "비블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절에서 한 번 자고나면 비블자나 타종교인의 90%는 친 불교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 특성화·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절실

보완해야 될 점도 분명 있다. 가장 큰 지적은 "이젠 양보다 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참선'을 할 때도 외국인의 경우 무조건 오래 앉혀놓을 것이 아니라 시간을 줄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발우공양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에게는 '체험'의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그 정신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화점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찰마다 그 절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1박2일의 짧은 일정은 아니라 보다 긴 호흡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특성화·전문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다.

종단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담당자가 1명밖에 없고, 예산 편성도 따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 제약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종단적 관심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참여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템플스테이나 주말 수련회 등이 인기를 끌면서 절에서 사원 연수를 실시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사진은 대흥사 주말 수련회 참가자들의 숲속산책 장면.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이용성
지하철 '풍경소리'
사무처장



'전국구' 된 풍경소리

기차 역마다 포교계시판

문화포교 건강한 씨알 자임

스님!

무더위에 평안하십니까? 전에 보았을 때 신신 차 잘 마시고 있습니다. 힘 들고 지쳤을 때 마시는 한 잔의 차를 통해 처음 풍경소리를 시작할 때 해주셨던, "처음마음을 잊지 마라"는 말씀 향 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풍경소리도 여인 창립 4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정말 뜻 깊은 일 한다는 주변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기운을 회복하고 한걸음씩 달려왔습니다. 처음 서울지하철공사에서 1-4호선 역사에 계시판 설치승인을 받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감정에 젖었던 일이 정말 꿈같게 느껴집니다. 포스터를 교체하고 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문의 전화들, 글의 의미를 묻는 전화에서부터 작가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까지, 그리고 제일 반가운, 후원을 하시겠다고 전화주시는 후원자분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보람과 대중공간포교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들이 었죠.

초기에 지하철 주변사찰에 협찬을 요청하러 들어갔다가 잠입된 취급을 당하고 나와야 했던 일들도 이제는 재미있는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전국 230여 개의 사찰이 저희 풍경소리 불사에 동참하고 계시니까요. 이제는 전국 지하철(서울, 대구, 부산, 인천) 뿐만 아니라 일반 철도역 대합실까지 다 포교계시판을 설치하였으니 명실공히 전국구(?)가 된 셈입니다.

계시판을 붙인 역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계시판을 활거해 달라고요. 타종교인들의 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역 관제사를 설득해야 하는 건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그만큼 계시판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걸로 해석돼 즐겁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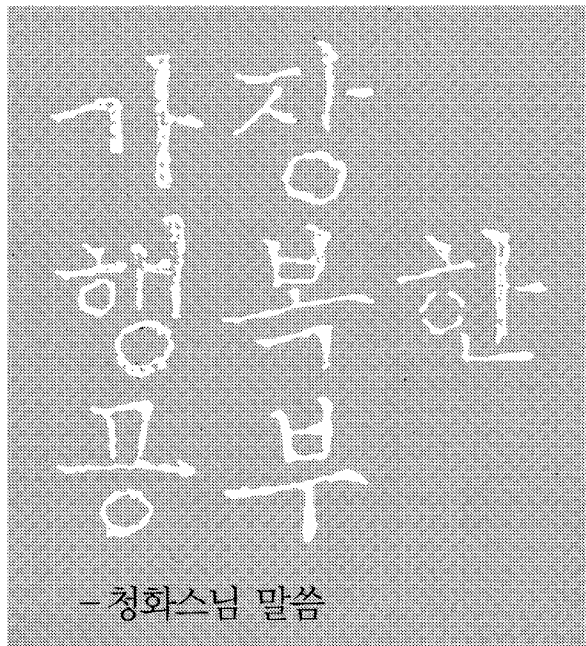
요즘 풍경소리에서 전통사찰문화 체험이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반인들에게 사찰수행공간을 개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지 못하지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직언, 연령, 종교까지 말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천주교 신자이신 50대의 여성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웅전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 봤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불교문화가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향수를 풍기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반국민의 요구에 호응해 줘야 하는 것이 불제자의 의무라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일전에 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 캐릭터전시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전연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불교적인 소재의 작품이 나와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한편으론 대한민국의 캐릭터산업의 현실을 본 것 같아 쓸쓸하기도 했지만 그곳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를 너무 슬프게 했습니다. 문화포교를 해 보겠다고 자임하고 나선 단체의 실무자로서 앞으로 할 일을 확실히 알게 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경소리의 실무자들끼리 항상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일의 성과들은 사찰이나 포교당에서 거둬들여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의 결과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순순히 '정체'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들요. 그런 생각이 저희를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스님과 주변의 많은 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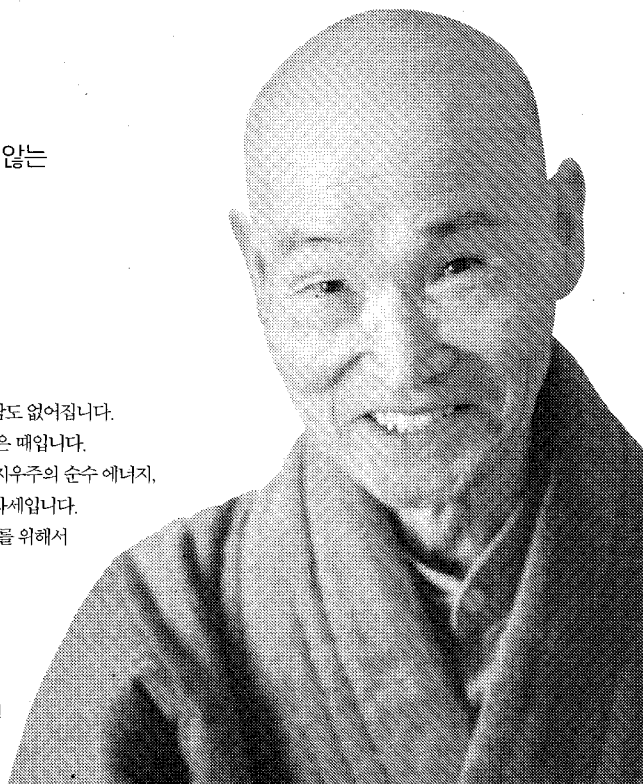
우리 시대 큰스님, 청화스님의 맑고 깨끗한 법문



40년간 하루도 바닥에 등을 대고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수행, 하루 한 끼만의 식사, 그리고 철저한 계행(戒行)의 삶... 불교계의 큰어른 청화 스님이 전하는 행복한 마음 공부

참선을 잘 하면 내가 없고 내가 없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도 없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만이 좋은 날이고 때때로 좋은 때입니다. 우리 마음은 나다. 나다. 좋다. 싫다. 시비를 다 떠나서 천지우주의 순수 에너지, 순수 정기인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이 참선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이고, 염불도 그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날 좋은 날 모두 좋은 사람' 중에서(40쪽)

● 청화스님 말씀 | 신국판 | 269쪽(컬러 화보 포함) | 값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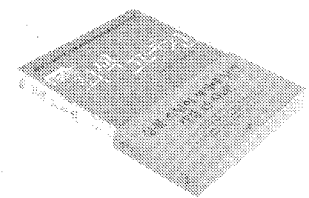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www.sigongsa.com 시공사

청당스님의 딸, 성철스님의 제자인 묘엄스님 이야기

회색 고무신

낡은 걸망 하나, 기워 입은 옷 한 벌, 그리고 고무신 한 켤레가 가진 것의 전부였던 시절. 묘엄스님이 추억하는 이야기 속에는 맑은 가난을 즐기던 청빈한 수행자들의 삶이 가득합니다.



● 묘엄스님 구술, 윤창광 역음 | 신국판 | 356쪽 | 값 9,000원